

로동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2호 【주체 제2544호】 주체 105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부대들과 단위들에 감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 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함북도 북부 피해복구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부대들과 단위들에 감사사를 보내시었다.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시킨 당의 결전에 열렬히 호응해서 조선인민군 진동준속부대, 유성철소속부대, 현영철소속부대의 장병들은 전투에 진입한 첫날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공격전을 벌여 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많은 대성들의 골조공사를 성파적으로 끝냄으로써 특수한현장에서의 결사투쟁의 정신, 단순성의 기상을 남김없이 펼치셨다.

922전투전격대 인민보안성령단의 전투원들도 만리마속도참조의 불길놀이 부딪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훑고나가며 불과 20여일만에 실패없는전투를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셨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구전이라는 높은 자각을 갖고 철도성의 인공물과 로동계급은 전철의 그 정신, 그 기개로 세멘트를 비롯한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수송함으로써 전투승리의 불패를 열고 전회위부의 거적장소에 적극 기여하셨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깊이 세

기고 삼악같이 펼쳐나선 흑해운성의 정무원들과 수송전사들, 돌격대원들은 수송속도이자 피해 복구속도이러고 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물동수송전투를 대담하게 작전하고 내민이 매일 화물통과량을 종전에 비해 4-5배로 끌어올리는 기적을 창조하셨으며 실패없는전투에서도 혁신을 일으켰다.

함경남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은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에 자신들부터 앞장서는 헌신 도인의 인민들의 뜨거운 지성이 어떤 수많은 건설자재, 생활필수품, 우방물자들과 건설력량을 북부전역에 한시마써 보내주기 위한 철야전투를 힘있게 벌이셨다.

경흥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군민대연결의 위력으로 만리마속도의 새로운 건설시대를 창조하며 군적인 실패없는전투를 끝내고 자랑찬 승리의 첫 개가를 울리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인민군장병들과 일군들, 근로자들은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거적적승리를 인양하기 위한 총성의 20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함으로써 주체조선의 벽송의 기상, 영웅적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세계민방에 펼쳐갈 혁명적의열에 넘치셨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대학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서한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인터넷에 게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대학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서한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를 9월 30일과 10월 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셨다.

러시아의 파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셨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에게 서한을 보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한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자, 과학자들

이 혁명인재들을 수없이 키워냈으며 대학이 과학기술발전에서 중추적역할을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종합대학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우주항공기술과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첨단분야, 중요 부문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 학부, 학과들을 창설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또한 대학을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우리는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내리고 외국인류학생들을 많이 받들며 대하여 강조하셨다.

이 나라의 스푸트니크방송, 인터넷

트통신 웨스페, 루, 일본의 코도통신과 로키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조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의 인터넷트롬페지들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서한의 전문 또는 요지를 보도하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대학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서한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를 영국신문경적지언구협회가 4일 인터넷트롬페지에 게재하셨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결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인 서한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결기모임이 27일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용태동지와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 시인의 로동계급, 직맹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모임에서는 주령직 직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직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수동, 평안북도직맹위원장 최성남, 황해북도직맹위원장 로동사 박영철이 결의문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천만군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이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결기모임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서한은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다하며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심숙미운 투쟁의 앞길을 활짝 열어준 불멸의 대장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총력투쟁과업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세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명심하고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셨다.

그들은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며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로 태양으로 천세만에 높이 우리러모시고 금수산대양궁전을 걸사모위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직맹총동맹의 강령적과업에 앞장서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김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셨다.

그들은 전 동맹을 당의 유일적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조직적인 일체, 행동의 통일성을 띤 투쟁의 혁명적대열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결기모임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서한은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다하며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심숙미운 투쟁의 앞길을 활짝 열어준 불멸의 대장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셨다.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직업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불멸의 대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 7 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한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직업동맹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결미이 충직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정치조직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우리 로동계급과 직맹조직이 나아가길 원하되 밝혀준 불멸의 대장, 강령적인 무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셨다.

우리 공작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이 사상정신적무기를 온몸으로 틀어쥐고 공작을 힘있게 벌이고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적지침을 깊이 빛내어나가겠습니다.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불리우시며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질수록 우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앞장서 달려나갈 결의에 충만되어있다고 말하셨다.

평양방직기계공장 조급직맹위원장 김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서한은 최급직맹

과업수행에 앞장서서 대담하게 작전하고 내민이 매일 화물통과량을 종전에 비해 4-5배로 끌어올리는 기적을 창조하셨으며 실패없는전투에서도 혁신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종합대학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우주항공기술과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첨단분야, 중요 부문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 학부, 학과들을 창설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또한 대학을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우리는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내리고 외국인류학생들을 많이 받들며 대하여 강조하셨다.

이 나라의 스푸트니크방송, 인터넷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대학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서한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를 9월 30일과 10월 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셨다.

러시아의 파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셨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에게 서한을 보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한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자, 과학자들이 혁명인재들을 수없이 키워냈으며 대학이 과학기술발전에서 중추적역할을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종합대학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우주항공기술과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첨단분야, 중요 부문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 학부, 학과들을 창설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또한 대학을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우리는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내리고 외국인류학생들을 많이 받들며 대하여 강조하셨다.

이 나라의 스푸트니크방송, 인터넷

전투적기치를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

직업총동맹위원회 부위원장 최수동은 온 나라 천만군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여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에 열렬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서한을 받아안은것은 우리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직맹원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며 행복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서한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력적인 령도와 크나큰 믿음속에 창립되고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온 직업동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높이 높이 축하하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전 세계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우리 직맹원들의 위대한 승수이다.

혁명성과 조직성이 강한 전위부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서한을 받아안고 동분한 심정으로 갈수 없다고 하면서 직맹중앙위원회 부장 최수동은 자기의 결의를 이렇게 피력하셨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정통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진행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사회주의건설에 자기의 열정과 지혜를 아낌없이 바쳐나가기로 하였다. 직맹조직들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속에서 대중운동을 조직하는 사업에 앞장서서 대담하게 작전하고 내민이 매일 화물통과량을 종전에 비해 4-5배로 끌어올리는 기적을 창조하셨으며 실패없는전투에서도 혁신을 일으켰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직맹위원장 장광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에서 기본전투단위인 직맹조직들을 의소리는 전투부대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냈었다.

련합기업소인인 모든 직맹조직들이 직맹원들과의 사업에 온 힘을 넣이 모든 동맹원들을 당의 투쟁에 굳게 묶어세우고 당정책관행으로 적극 불리우시며 나가기로 하였다. 핵심, 열성적분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을 요양하는 방법으로 대중을 요양해주시며 동맹조직을 강화해나간다고 하시며 이번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낼수 있는 전위부대로 준비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상원로동계급의 영예를 더욱 높이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천리제강련합기업소 직맹위원장 강철은 직맹조직들의 전투력과 역량을 동맹사업에 조직하고 지도하는 직맹원들의 주체

조급직맹위원장 최수동은 자기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더욱 굳게 틀어쥐고 혁명적의열을 불태우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투쟁해나가는것을 기쁘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우리는 직맹원들의 애국적의열과 헌신적투쟁을 적극 불리우며 생산의 과확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싶기이다 만가동, 만무하를 보장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순천지구청년련합기관지

조선직업총동맹을 당에 충실한 로동계급의 대공적정치조직,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위대한 전위부대로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당면하여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 방향으로 전환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과시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서한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결의에 넘쳐있는 대회참가자들



경애하는 원수님 높이 모신 사회주의 내 나라에서만 당 의 은정 속에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의 학생소년들이 실화 세상에 부럼 없 어 라

지난 10월 20일 함경북도의 북부피해지구에서 1,000여명의 소년단원들이 직통열차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에 도착하였다.

뜻밖의 세난으로 집과 학교를 잃고 혈육들도 잃은 아이들이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에서 아영생활을 하도록 하여준 어머니당의 은정 어린 조치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은 온 나라를 크나큰 흥분과 격동으로 들끓게 하였다. 그야말로 세상에 다시 없을 전화위부의 가장 큰 기적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에서 《세상에 부럼 없 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아영생활기간 아영생활이 제일 많이 부른 노래는 《세상에 부럼 없 어라》였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교원들도 아영소 종업원들도 온 나라 인민이 함께 불렀다.

이 명곡은 주제 50(1961년)에 태어났다. 그때로부터 반세기 넘는 세월이 이 땅에서는 시련도 많고 세난도 있었지만 《세상에 부럼 없 어라》노래만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가며 끝없이 울려 퍼졌다.

아영생활과 함께 그 명곡을 부르며 우리는 지금까지는 몰랐던 《세상에 부럼 없 어라》노래에 담긴 깊고 깊은 의미, 하늘같은 무게,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실감으로 특별히 절감하게 되었다.



〈 아버지 대 원수님, 저희들이 왔 습 니 다 ! 〉

고맙습니다.』

『《전 마시령의 이 사도들라고 온 지구를 한바퀴 돌고 싶어요. 그리고 목청껏 외치고 싶어요. 세상에 부럼 없 어라!》』

우리와 함께 아이들의 아영생활을 위해 헌신하신 송도원국제소년단장 김경철은 말했다.

『이렇게 가슴뜨거운 생활이야말로 훌륭한 명작입니다.』

동해명승 송도원의 아침도 아름다웠지만 밤은 더없이 아름다웠다. 불빛이 찬란한 한강에서는 북부전선으로 지원물자들을 싣고 떠나는 배고동소리가 정답게 울려왔다.

은종일 아이들의 방방한 목소리로 떠돌아다니던 아영소의 하루가 저물었다. 난생처음 보는 아영각의 승강기를 타고 몇년이고 오르내리면서 좋은 풍경을 다 둘러보며 싸우던 마지막정난투쟁기도 이제는 이마도 일기장에 얼룩을 묻고 끝나려 갔으리라. 그 중에 이제 더는 곤돌도 아영소 승강도 없으리라.

아영소의 마당가에 서서 끝없이 잇달아 들어서는 전국각지의 잊지 못할 사람들의 얼굴이 선히 떠올랐다. 전학답사길을 돌려 친원유과도 같은 북부피해지역 아이들에게 안겨줄 학습용품을 영양식품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아영생활이 도착한 그날로 제일 먼저 아영소에 찾아와 인사하며 감동적인 정경이요 인사를 비롯한 김일성종합대학생대학의 교원, 학생들과

그들은 전화위복의 첫 주인공들이었다

아이들은 정말 꿀을 구듯이 고향을 떠났고 송도원행 열차를 탔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펼쳐나 제 지식을 시험할 아영생활을 해주고 그렇게 뜨겁게 눈부시게 하며 배운지 그 때는 다 알았다. 일주일, 열흘이... 철우지나 다름없는 나이었다.

아영생활이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에 도착한 다음날인 10월 21일, 국제소년단원회의 국장은 아영소가 생겨 가장 큰 귀인으로 맞이한 1,000여명 아영생활을 위한 아영소 교직원들의 환영 공연이 진행되었다.

선생님들이 명랑하게 불러주는 아동가요에 아영생활이 좋아서 연신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심회이기가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무대에 올랐다. 환영하는 대변이 풍물 공연도 조종했다. 무대의 이가 있는 다름없는 아영생활이 끝났던 아영생활에서 실지 있는 사실, 회생선 승리하고금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전선장에 못밖엔 날아온 놀라운 소식-《우리 아버지를 간담다!》

무대에서 울리는 감격에 못매인 부르짖음이 장내를 울렸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복에 잠긴 학교에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그려내오라 들어오신 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세상에 부럼 없 어라』 노래를 부르며 울었다. 『세상에 부럼 없 어라』 노래를 부르며 울었다. 『세상에 부럼 없 어라』 노래를 부르며 울었다. 『세상에 부럼 없 어라』 노래를 부르며 울었다.』

『네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아영소의 지도교원들은 모두 만담수들로 고운웃었다. 거울집에서도 실내체육관에서 어머니가 되게 웃는 아이들 모두가 그냥 웃고 또 웃었다. 전차오락실에서도 림세물동화관에서도 들리는 웃음, 보는 웃음에서나 즐거움과 기쁨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용진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아영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하나에서부터 열, 백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며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얼굴에 그늘이 진 아이들이 없게끔 세심하게 살폈다. 혈육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데리우 친정을 썼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아영소의 지도교원들은 모두 만담수들로 고운웃었다. 거울집에서도 실내체육관에서 어머니가 되게 웃는 아이들 모두가 그냥 웃고 또 웃었다. 전차오락실에서도 림세물동화관에서도 들리는 웃음, 보는 웃음에서나 즐거움과 기쁨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용진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아영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하나에서부터 열, 백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며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얼굴에 그늘이 진 아이들이 없게끔 세심하게 살폈다. 혈육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데리우 친정을 썼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아영소의 지도교원들은 모두 만담수들로 고운웃었다. 거울집에서도 실내체육관에서 어머니가 되게 웃는 아이들 모두가 그냥 웃고 또 웃었다. 전차오락실에서도 림세물동화관에서도 들리는 웃음, 보는 웃음에서나 즐거움과 기쁨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용진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아영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하나에서부터 열, 백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며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얼굴에 그늘이 진 아이들이 없게끔 세심하게 살폈다. 혈육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데리우 친정을 썼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아영소의 지도교원들은 모두 만담수들로 고운웃었다. 거울집에서도 실내체육관에서 어머니가 되게 웃는 아이들 모두가 그냥 웃고 또 웃었다. 전차오락실에서도 림세물동화관에서도 들리는 웃음, 보는 웃음에서나 즐거움과 기쁨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용진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아영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하나에서부터 열, 백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며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얼굴에 그늘이 진 아이들이 없게끔 세심하게 살폈다. 혈육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데리우 친정을 썼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아영소의 지도교원들은 모두 만담수들로 고운웃었다. 거울집에서도 실내체육관에서 어머니가 되게 웃는 아이들 모두가 그냥 웃고 또 웃었다. 전차오락실에서도 림세물동화관에서도 들리는 웃음, 보는 웃음에서나 즐거움과 기쁨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용진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아영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하나에서부터 열, 백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며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얼굴에 그늘이 진 아이들이 없게끔 세심하게 살폈다. 혈육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데리우 친정을 썼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아영소의 지도교원들은 모두 만담수들로 고운웃었다. 거울집에서도 실내체육관에서 어머니가 되게 웃는 아이들 모두가 그냥 웃고 또 웃었다. 전차오락실에서도 림세물동화관에서도 들리는 웃음, 보는 웃음에서나 즐거움과 기쁨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용진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아영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하나에서부터 열, 백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며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얼굴에 그늘이 진 아이들이 없게끔 세심하게 살폈다. 혈육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데리우 친정을 썼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아영소의 지도교원들은 모두 만담수들로 고운웃었다. 거울집에서도 실내체육관에서 어머니가 되게 웃는 아이들 모두가 그냥 웃고 또 웃었다. 전차오락실에서도 림세물동화관에서도 들리는 웃음, 보는 웃음에서나 즐거움과 기쁨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용진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아영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하나에서부터 열, 백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며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얼굴에 그늘이 진 아이들이 없게끔 세심하게 살폈다. 혈육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데리우 친정을 썼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아영소의 지도교원들은 모두 만담수들로 고운웃었다. 거울집에서도 실내체육관에서 어머니가 되게 웃는 아이들 모두가 그냥 웃고 또 웃었다. 전차오락실에서도 림세물동화관에서도 들리는 웃음, 보는 웃음에서나 즐거움과 기쁨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용진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아영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하나에서부터 열, 백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며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얼굴에 그늘이 진 아이들이 없게끔 세심하게 살폈다. 혈육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데리우 친정을 썼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아영소의 지도교원들은 모두 만담수들로 고운웃었다. 거울집에서도 실내체육관에서 어머니가 되게 웃는 아이들 모두가 그냥 웃고 또 웃었다. 전차오락실에서도 림세물동화관에서도 들리는 웃음, 보는 웃음에서나 즐거움과 기쁨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용진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아영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하나에서부터 열, 백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며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얼굴에 그늘이 진 아이들이 없게끔 세심하게 살폈다. 혈육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데리우 친정을 썼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아영소의 지도교원들은 모두 만담수들로 고운웃었다. 거울집에서도 실내체육관에서 어머니가 되게 웃는 아이들 모두가 그냥 웃고 또 웃었다. 전차오락실에서도 림세물동화관에서도 들리는 웃음, 보는 웃음에서나 즐거움과 기쁨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용진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아영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하나에서부터 열, 백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며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얼굴에 그늘이 진 아이들이 없게끔 세심하게 살폈다. 혈육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데리우 친정을 썼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아영소의 지도교원들은 모두 만담수들로 고운웃었다. 거울집에서도 실내체육관에서 어머니가 되게 웃는 아이들 모두가 그냥 웃고 또 웃었다. 전차오락실에서도 림세물동화관에서도 들리는 웃음, 보는 웃음에서나 즐거움과 기쁨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용진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아영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하나에서부터 열, 백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며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얼굴에 그늘이 진 아이들이 없게끔 세심하게 살폈다. 혈육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데리우 친정을 썼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아영소의 지도교원들은 모두 만담수들로 고운웃었다. 거울집에서도 실내체육관에서 어머니가 되게 웃는 아이들 모두가 그냥 웃고 또 웃었다. 전차오락실에서도 림세물동화관에서도 들리는 웃음, 보는 웃음에서나 즐거움과 기쁨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용진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아영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하나에서부터 열, 백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며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얼굴에 그늘이 진 아이들이 없게끔 세심하게 살폈다. 혈육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데리우 친정을 썼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아영소의 지도교원들은 모두 만담수들로 고운웃었다. 거울집에서도 실내체육관에서 어머니가 되게 웃는 아이들 모두가 그냥 웃고 또 웃었다. 전차오락실에서도 림세물동화관에서도 들리는 웃음, 보는 웃음에서나 즐거움과 기쁨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용진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아영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하나에서부터 열, 백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며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얼굴에 그늘이 진 아이들이 없게끔 세심하게 살폈다. 혈육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데리우 친정을 썼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아야 아버지도 기뻐 할 것이다.』

『얼마후 조류사냥을 지나 보트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밝은 웃음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물결을 헤쳐가는 경원소년단의 모습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년도 마추 손을 흔들었다.』

꽃피날수 있는 후대사랑의 최절정 - 송도원의 새 전설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행복한 야영생활을 보내고있다



